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 (저 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축 첫영성체 *

05월 01일(토) 유초등부 미사 중에 11명의 어린이들이 첫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로서 바르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영세를 축하합니다.(05월 01일)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06/03	김희숙	카타리나	13/01	김임순	마리아
07/04	이윤정	스텔라	15/01	박재한	요셉

◎ 지역별 성모의 밤

일자	5월6일(목)	5월13일(목)	5월20일(목)	5월24일(월)
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 저녁 7시부터 묵주기도 후 “도움이신 마리아 대축일” 미사 봉헌합니다.

◎ 알림

- 유아 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종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성소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일 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5/02	21~24, 기타구역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05/09	1~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05월 03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04/21~04/27)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6구역 5반	김재원	야고보	서울대/용산
6구역 5반	신영경	효주아네스	의정부/원흥동

◎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 전출

- 2016년 01월 01일 이전 영세자 중 교무금/판공 성사/병자성사/봉성체 등의 기록이 없으신 신자 본은 서울대교구 거주미사 본당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 빈첸시오회 후원금 모집 *

코로나19로 정기적인 판매를 통한 후원금 모집이 안되어, 본당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05/09)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0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4월21일 ~ 04월27일)

• 교무금	7,327,000원
• 주일헌금	4,076,000원
• 오라토리오 2차헌금	1,252,000원
• 감사헌금	김영실50만원 최경진10만원 심점순10만원 오희영10만원 박정순10만원 이기연10만원 영금선50만원 정영자 1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05/02	구민서	조흥환	김영균
05/09	최경희	오성환	도현만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주일	06:30	10:30	12:00	19:00
05/02	이성일	최상남	장인홍	최석준	김광수
05/09	이운영	최석준	최상남	최승일	김영배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충분히 보편적이지 못한 인권

22. 실제로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이따금 증명됩니다. 인권 존중은 “한 나라의 사회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받고 자기 관리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받을 때에, 창의성과 진취성도 꽃을 피우고 인간의 개성으로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모순은 70년 전에 장엄하게 선포된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되며 보호받고 증진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인간학 전망들은 물론, 거리낌 없이 착취와 유기와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윤에 기초한 경제 모형이 조장하는 무수한 형태의 불의가 현대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기 존엄을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하거나 짓밟히면서 그 기본권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권리의 평등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23.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 세계 사회 구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는 표현되지만, 결정과 현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흔히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기에 이종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24.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식합시다. “국제 공동체가 온갖 형태의 노예살이를 없애고자 수많은 협약을 맺고, 이러한 현상과 맞서 싸우려고 다양한 전략들을 실행하였음에도,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어린이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노예살이는 인간을 물건처럼 다룰 여지가 있는 인간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힘이나 속임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억압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되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범죄망은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자 최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일탈 행위는 여성들을 예속하고 그들에게 낙태를 강요합니다. 극악무도한 행동이 장기 매매를 위한 불법 인신 감금으로 이어집니다. 인신매매와 또 다른 형태의 노예살이는 인류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세계적 문제입니다. “범죄 조직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제적 연계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현상을 극복하려면 사회 각계 인사들의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